

## 대학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영향요인 탐색\*

김 중 학

최 보 영†

제주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예방적 개입과 대학상담센터의 정책 및 전문성 입증을 위해 대학상담서비스에 지불할 수 있는 액수를 추정하고, 지불하려는 액수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보는데 있다. 전국 59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상담(60분 소요) 1회 비용으로는 15,785원~15,954원을, 집단상담(2시간 소요) 1회 비용으로는 11,811원~12,028원을, 심리검사 1회 비용으로는 19,908원~19,949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만 투입된 모델1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이 모두 투입된 모델2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1로 분석한 결과, 개인상담과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학년과 상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로 분석한 결과, 개인상담의 경우에는 학년과 전문적도움추구 및 상담준비도가 커질수록 지불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전문적도움추구와 상담준비도가 커질수록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학년과 전문적도움추구가 증가할수록 지불의사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대학상담서비스, 경제적 가치, 영향요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638).

† 교신저자 :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Tel : 064-754-2168, E-mail : bychoi@jejunu.ac.kr

대학 입시를 위해 학업에만 열중했던 중·고등학교 때의 생활을 마치게 되면 이 전의 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아(통계청, 2016a)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전의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문제 상황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활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서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하며(이선희, 2002)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정립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이 대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생활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자신이 당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장휘숙, 2000).

이처럼 대학생 시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적응정도 및 정신건강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문제, 대인관계 문제, 가치관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양현정, 2003),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대학생 포함)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울증은 2007년 9.7%에서 2015년 14.9%로(국가통계포털, 2016), 자살충동은 2005년 22.6%에서 2007년 23.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혜순, 2010).

대학시기 동안 발생한 부적응적인 양상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 확립에 실패하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유·무형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들의 성장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요구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살과 같은 문제의 경우, 'OECD 주요국의 자살률'에 의하면 한국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연속 자살률 1위이다(통계청, 2016b). 이 중에서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20대의 사망원인 또한 자살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c). 이러한 결과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살에 대한 대처에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법률적 근거 및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각 대학에서 대학생의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심리지원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원체계로는 학내의 대학상담센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상담센터의 일차적 업무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치유와 성장을 목표로 상담적 개입을 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사전예방을 통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최윤미, 2012). 학생상담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상담의 경우 홍보활동에 그쳐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활용은 저조한 편이다(정은영, 2012). 심리검사의 경우 성

격검사, 진로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미화, 임현술, 최원상, 2005). 서명석(2002)의 연구에서도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주로 상담활동과 심리검사 서비스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상담센터에서의 상담개입 형태는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심리검사 서비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대학상담센터의 운영과 실태에 대한 정은영의 연구(2012)에 따르면 대학 내,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0.8%로 조사되었다. 이지현(2010)의 연구에서도 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은 학생의 수가 22.1%로 조사되어, 상담센터가 설치된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센터 이용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담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심리검사가 43.0%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개인상담(38.4%), 집단상담(10.5%)의 순으로 나타났다(정은영, 2012).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상담센터 만족도를 조사 한 정은영의 연구(2012)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교내 상담센터를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생들 또한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전문적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이선희, 2002), 학생 상담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있어서 상담적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Wampold, 2000)를 고려해 본다면, 학생들과 가까운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학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200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202개교 중에서 175개교에서, 전문대학은 총 155개교 중에서 83개교에서 학생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서영석 2006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4년제 대학의 86%, 전문대학의 53%에서 학생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상담실 등의 명칭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대학의 상담센터 설치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각 대학들이 상담기관을 어느 정도의 전문 인력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몇몇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의 열악한 재정과 학교운영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많은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원을 한두 명 수준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와 대조하면 양적인 면에서나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숫자임을 밝히고 있는 연구(손은령, 고흥월, 이순희, 2013)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광웅과 조병주(2001)의

연구에서도 전국 대학상담센터의 인적 구성 및 상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장, 전임상담교수, 연구원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담센터 인력이 2명(20%), 혹은 3명(19.2%)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4명은 14.2%에 불과하였다. 이는 최소인력의 형태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전문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연구소의 활동업무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장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전공자가 임명됨으로써(김계현, 1995),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장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수현, 2002). 같은 맥락에서 정은영(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학생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의 역할로 상담센터의 홍보와 시설 확충, 그리고 전문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 운영진의 재정적 지원 및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학내 상담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의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보강 및 예산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상담서비스의 상담 효과를 밝힌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명 전문적 상담서비스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상담서비스의 효과를 밝히고 있는 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위의 결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학교운영진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낯선 데이터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학교운영자들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에 대

한 효과 및 가치를 입증하여 상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책적인 지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편타당한 상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라는 상담서비스가 창출해 내는 경제적인 가치를 금전적 액수의 형태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상담실의 전문적 상담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인적자본 접근법(HCA: Human Capital Approach), 지불의사 접근법(WPA: Willingness to Pay Approach), 마찰비용접근법(FCA: Friction Cost Approach) 등이 있다(이상민, 남숙경, 이미경, 2009). 이 중 지불의사 접근법(WPA)은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한 삶으로의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학 내 상담서비스를 1회 제공받는다면 이 서비스에 최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액수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내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의료개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Drummond, Sculpher, Torrance, O'Brien & Stoddart, 2005)를 비롯하여, 환경과

같이 경제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무형적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ockstael, Freeman, Kopp, Portney, & Smith, 2000; Jakobsson & Dragun 1996; Mitchell & Carson, 1989; Portney, 1994). 최근에는 자유시장경제로서는 설명되지 못하는 공공의료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Chiu, Tang, Liu, Shyu, & Chang, 1998; Zarkin, Cates, & Bala, 2000). 국내에서는 백두대간의 비시장적 가치연구(유진채, 정대현, 2003)와 마을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 연구(이명균, 임동순, 2006) 등 환경에 대한 경제적 가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및 공공 도서관의 가치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임정현, 고태호, 황경수, 양영철, 2007; 표순희, 정동열, 2008).

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추정을 통해 분석한 연구(최보영, 이지희, 김원영, 이상민, 2010)와 비용-효과분석의 방법을 통해 대학 내 집단상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이상민 외, 2009) 등 몇몇의 연구들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담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중, 조건부가치추정법은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보고서를 통해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무형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이영범, 고태호,

홍근석, 지현정,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대학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지불의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학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또한 대학생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지불의사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의도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기본적인 성별 및 학년, 그리고 상담경험 유무, 수입 등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지불의사 액수에 수입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상담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상담심리학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시설에 접근 가능성, 상담을 받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같은 주변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들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유성경, 유정이, 2000; 이민지, 손은정, 2007; Vogel, Wester, & Larson, 200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로 전문적도움추구, 자기노출위험, 상담준비도, 심리적 불편감 등이 확인되고 있다. Fischer와 Turner(1970)는 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기에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란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Kushner & Sher, 1991).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호의적일수록 상담자의 전문적, 인간적 자질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Cash, Kehr & Salzbach, 1978), 실질적인 상담 요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Greenley & Mechanic, 1976). 상담 이용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민지(2007)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김혜경, 2012)와 아울러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하여 사람들이 상담자가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 상담을 받고자하는 의도가 높아지지만, 상담서비스, 상담기관, 상담 전문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김혜경, 2012)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상담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며(Vogel, Wester, Wei, & Boysen, 2005), Omarzu(2000)은 유용성과 위험 기대를 설명하면서 자기노출 결정에 따른 주관적 위험과 가능한 보상의 주관적 유용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기노출은 주관적 유용성과 위험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기노출의 주관적 유용성은 자기노출의 폭을 감소시키고 지속시간과 양을 증가시키는 반면, 주관

적 위험은 자기노출의 깊이를 감소시킨다(Omarzu, 2000). Kelly와 Achter(1995)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려 갈지를 결정할 때 20% 이상의 사람들이 상담의 유용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상담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개인이 상담을 받으려 하는 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에(Bayer & Peay, 1997)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담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Vogel & Wester, 2003).

박성익(1997)은 학생이 교육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에 도달한 후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담준비도란 상담에 참여할 내담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의지적, 지적,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손연아, 2011), 이 개념은 어떤 내담자는 다른 내담자에 비해 상담을 통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지녔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Minge, 1965). 상담이용과 상담준비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준비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이우람, 2017)가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손연아(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상담준비도와 상담서비스요구의 관계는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담준비도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의 준비정도로 상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내담자는 상담기관의 상담활동이 활발하여 상담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게 된다(손연아, 2011). 그리고 이우람(2017)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상담준비도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담준비도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불편감은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압박감과 긴장상태로서, 과도하고 불쾌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를 의미하며(유영란, 2005), 문제 상황 발생 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은 문제에 대한 특성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Lazarus & Folkman, 198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영임(1999)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심리적 불편감이 높은 사람이 상담을 받는 빈도가 높다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Goodmand, Sewell, & Jampol, 1984; Kushner & Sher, 1989; Deane & Chamberlain, 1994). 또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 관련하여 내담자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하지 않는 원인으로 상담비용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Vogel & Wester, 2003), 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Deane & Todd, 1996)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개인에게 오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을 탐색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 유성경, 유정이(200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상담센터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한다면, 대학이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담센터의 존재 여부 및 예산 책정 시 의

사결정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학상담서비스의 가치 및 효과를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개인이 상담서비스에 지불하려는 액수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학 상담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가치 추정의 대상재 화로서 현재 각 대학의 상담관련센터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대학상담서비스의 형태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이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지불 할 수 있는 액수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4개 구간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실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연속된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하는 이중양분선택형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대학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심리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불의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중양분선택형의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

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과 심리적 변인(자기노출위험, 전문적도움추구, 심리적어려움, 상담준비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넣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 단위 이상의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의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출력하여 학생에게 주는 소정의 답례품과 같은 동봉하여 해당지역의 각 교수들의 대학으로 택배를 배부하였고, 설문 완료되면 설문 자료를 다시 택배로 받는 식의 과정을 거쳤다.

#### <예비조사>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수치화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고, 개인이 상담서비스에 지불하려는 액수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본조사에 앞서 1차 예비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불할 수 있는 액수의 4개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교 1-4학년 100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일주일 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시간은 약 8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은 34명(34.0%), 여학생은 66명(66.0%)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40명(40%), 2학년 29명(29%), 3학년 21명(21%), 4학년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이 29명(29%)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사범계열 17명(17%), 인문계열 16명(16%), 사회계열 15명

(15%), 공학계열 10명(10%), 예체능계열 7명(7%), 초등교육 4명(4%), 경상계열 2명(2%) 순이었고, 상담 경험 여부는 '있다' 44명(44%), '없다'에 56명(56%)이 응답하였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서비스를 가치 추정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현재 각 대학의 상담관련센터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대학상담서비스의 형태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대학상담센터에서는 크게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김수현, 2002), 대학상담서비스에 관한 가상 상황인 시나리오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들어가는 가상 지시문과 정보는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혹은 심리검사 서비스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될 수 있다면 최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기 위한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제공받는 서비스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제작 작업은 상담 전문가 2인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다.

##### 연구결과

제주 지역의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교 1-4학년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형태의 질문으로 지불의사 비용을 조사한 결과, 개인상담 1회 비용으로는 평균 16,750원을, 집단상담 1회 비용으로는 평균 17,790원을, 심리검사 1회비용으로는 평균 21,45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상담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각각 4개의 구간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개인상담의 경우 첫 제시액을 7,000원, 12,000원, 22,000원, 32,000원으로, 집단상담의 경우,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으로, 심리검사의 경우 6,000원, 16,000원, 26,000원, 36,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액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질문지를 각각 150부씩 할당하여 총 600부의 본 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조사〉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실제적인 계량화된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고, 개인이 상담서비스에 지불하려는 액수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지불 액수 4개 구간을 설정한 후, 본 조사 설문을 위해서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남, 그리고 제주 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의 4년제 대학교 14학년 6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문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 약 2주간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최대한 전집에 가까운 표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 단위이상의 다양한 지역을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가 배부되었고, 회수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총 59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99.5%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학생 238명(39.9%), 여학생 359명(60.1%)이었고, 학년별로는 3학년 195명(32.7%),

1학년 180명(30.2%), 4학년 130명(21.8%), 2학년 91명(15.2%)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146명(24.5%), 인문계열 109명(18.3%), 공학계열 108명(18.1%), 자연계열 77명(12.9%), 예술 및 체육계열 39명(6.5%)이었고, 기타 전공계열은 74명(12.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은 충북이 134명(2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 119명(19.9%), 서울 106명(17.8%), 경남 105명(17.6%), 제주 70명(11.7%), 경기 61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sc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를 유성경(1998)이 번안하고, 신연희(2002)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ATSPPH는 총 29문항, 4개의 하위요인(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8문항, 낙인에 대한 내인성 5문항,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7문항, 전문가에 대한 신뢰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응답자는 제시된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9~116점으로, 29문항 중 부정적으로 제시된 19문항을 역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우람(2017)이 응답 방식 및 요인분석결과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우람(2017)은 응답의 양극단을

피하고 감정력을 높이기 위해 3점(잘 모른다)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게 하였으며, 2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하로 나타난 2문항과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4문항을 제외한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23문항을 요인분석하여 3개의 하위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을 필요성인식(전문적 도움에 대한 필요성), 낙인내인성(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포용), 전문가 신뢰로 명명하였다. 문항 구성은 필요성인식 9문항(만약 친한 친구가 정신적인 문제로 조언을 구한다면 상담사를 만나보도록 권유하겠다. 등), 낙인내인성 9문항(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담사에게 가는 것이 불안하다. 등), 전문가신뢰 5문항(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우람(2017)의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각 영역의 내적 일치도는 필요성 인식 .77, 낙인내인성 .76, 전문가 신뢰 .54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 상담준비도

상담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인규(2002)가 개발한 상담준비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상담준비도 질문지는 총 28문항, 3개의 하위 요인(상담에 대한 태도 10문항, 상담에 대한 지식 13문항, 상담에 대한 정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자들이 제시된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의 범위는 28-140점으로 상담에 대한 정서 요인은 역척

점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질문지의 총점이 높을수록 상담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우람(2017)이 요인분석 등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우람(2017)은 2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하로 나타난 1문항을 제외하고 총 2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27문항을 요인분석하여 3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을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정서로 재명명하였다. 문항 구성은 상담에 대한 태도 13문항(나는 상담자에게 나 자신과 내 문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이다. 등), 상담에 대한 지식 9문항(내가 상담하는 사실이나 상담한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다. 등), 상담에 대한 지식 5문항(내가 괜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 받으러 온 것 같다. 등)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우람(2017)의 연구에서는 상담준비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상담에 대한 태도 .88, 상담에 대한 지식 .87, 상담에 대한 정서 .72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91로 분석되었다.

### 심리적불편감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와 Cleary(1977)가 개발한 Symptom Checklist (SCL-90)를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총 90개 문항 10개의 하위요인(신체화 12문항, 강박증 10문항, 대인민감성 9문항,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적대감 6문항, 공포불안 7문항, 편집증 6문항, 정신병 10문항, 부가적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가지의 증상차원을 측정하는 83문항과 채점되지 않는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7개의 부가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한 지난 7일간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1점(전혀 없다)에서 5점(아주 심하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SCL-90-R의 총점 범위는 83-4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연희(2002)의 연구에서는 Bartone, Ursano, Wright와 Ingraham (1989)이 개발한 증상 체크리스트(Symptom Checklist: SC)를 변안하여 우울/절수, 과다 각성, 범불안, 신체적 호소의 4가지 요인으로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였으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같은 도구를 쓴 유영란, 이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우울/절수/회피/, 불안/과다 각성, 우울/만추/침범, 신체적 호소의 4가지 요인으로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였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김주미(200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척도인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처럼 각각의 연구자마다 도구와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불편감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각 연구에서 예측력이 높았던 하위요인을 참고하여 32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을 우울, 불안, 부정적정서, 대인민감성으로 명명한 이우람(2017)의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우울 11문항(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등), 불안 8문항(손이나 마음이 떨린다. 등), 부정적정서 8문항

(울기를 잘한다. 등), 대인민감성 5문항(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등)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우람(2017)의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이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90, .87, .84,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 자기노출

상담자에게 자신의 정서적인 것과 연관된 자료들을 노출할 때 예기되는 위험 정도를 측정하고자 Vogel과 Wester(2003)가 개발한 노출 기대척도(Disclosure Expectation Scale; DES)를 사용하였다. DES는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본 연구에 필요한 위험에 대한 기대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기대는 상담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때 상담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지니면서도 여러 증가 및 감소의 경우를 표현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생존분석의 모수추정방식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즉 각 선택확률을 추정하여 분포의 양상이 많은 응답을 모수추정하여 추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생존분석 방식은 매우 유연하고 모형 적응성이 높아(강희용, 2003)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조사

된 지불의사액(WTP) 추정에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불의사 추정 방법은 크게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question),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선택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이 있다(권용석, 이진각, 손영태, 2006). 개방형 질문법은 단순히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묻는 질문방식이며 다른 여타의 보조 자료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응답자들이 너무 높은 금액이나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추정의 편향(bias)이 발생한다. 지불카드법은 개방형으로 질문할 경우 응답자가 금액을 유추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다양한 보기(카드)를 제시한 후 최대지불 가능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양분선택법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형태를 취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지불의사 유도가 유인 일치적이며, 저항적 지불의사(protest bids)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불의사 추정방법은 양분선택법 중, Hanemann(1984)과 Carson(1985)에 의해 제안된 이중양분선택법(dichotomous choice with a follow-up) 질문형식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형식은 일단 어떤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한편,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단 한번만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는

단일양분선택형 질문형식에 비해 두 번의 구매의사를 조사함으로써 좀 더 자세한 지불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승길, 2005). 설문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먼저 어떤 조건적 상황을 제시 하여 이 상황이 현재 당신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읽은 후 질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즉, 특정 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읽게 한 후, ‘만약 위와 같은 당신의 문제가 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신은 1회 상담료로 20,000원(이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1차 질문을 하고 만일 1차 질문에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면 2차 질문에서는 1차 지불액의 2배에 해당하는 40,000원(사만원)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다. 반면 1차 질문에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다면 2차 질문에서는 1차 지불액의 1/2에 해당하는 10,000원(일만원)에 대한 지불 의사를 질문함으로써 상담서비스가 창출해 내는 경제적 가치를 금전적 액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빈도분석을 위해서 Window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기 위한 생존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을 측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년, 상담경험 유무에 대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기술통계

변인	수준	사례 수	%
성별	남	238	39.9
	여	359	60.1
학년	1학년	180	30.2
	2학년	91	15.2
	3학년	195	32.7
	4학년	131	21.9
상담경험	없음	363	69.2
	있음	234	30.8

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1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소득과 자기노출위험, 전문적 도움추구, 심리적 어려움, 상담준비도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39.9%)보다는 여학생(60.1%)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학년 별로는 1학년(30.2%)과 3학년(32.7%)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담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담 경험이 있다는 응답(33.2%)보다 없다는 응답(60.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대학생의 월 평균 소득은 5만 9천 118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상관 분석 결과, 전문적 도움추구 및 상담준비도는 소득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노출위험( $r=-.12$ )과 심리적 어려움( $r=-.13$ )은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기노출위험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어려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r=.27, p<.01$ ), 전문적 도움추구( $r=-.32, p<.01$ ) 및 상담준비도( $r=-.37, p<.01$ )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는 심리적 어려움( $r=-.10, p<.05$ )과는 부적상관을, 상담준비도( $r=.62, p<.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 전문적 도움추구가 커질수록 심리적 어려움은 낮아지며 상담준비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준비도( $r=-.28, p<.01$ )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심리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상담준비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소득	2. 자기노출위험	3. 전문적 도움추구	4. 심리적 어려움	5. 상담준비도
1	-				
2	-.12**	-			
3	.00	-.32**	-		
4	-.13**	.27**	-.10*	-	
5	.01	-.37**	.62**	-.28**	-
M	509118	2.48	3.50	2.27	3.66
SD	333897.6	1.11	0.38	0.39	0.45

주. \* $p<.05$ , \*\* $p<.01$

개인상담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개인상담 1회(약 1시간 소요)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델 1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만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이며, 모델 2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자기노출위험, 전문적도움추구, 심리적 어려움, 상담준비도)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이다. 추정된 회귀식을 가지고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모델 1로 추정된 개인상담 1회 비용은 15,954원이었으며, 모델 2로 추정된 개인상담 1회 비용은 15,785원으로 분석되어 두 모델 간 지불의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인상담을 10회 정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상담에 지불할 수 있는 액수는 약

160,000원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모델 1에서는 학년(Coefficient=1618.32,  $p<.05$ )과 상담경험 여부(Coefficient=4065.51,  $p<.05$ )가 대학생의 개인상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담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상담에 지불하려는 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델 2의 분석 결과에서는 학년(Coefficient=1533.837,  $p<.05$ )과 전문적도움추구(Coefficient=7613.266,  $p<.01$ ), 그리고 상담준비도(Coefficient=7438.727,  $p<.01$ )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문적도움추구의도가 클수록, 상담에 대한 준비도가 클수록 지불의사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개인상담에 대한 지불의사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Coefficient	SE	t	Coefficient	SE	t
Intercept	8932.06	3691.59	5.85	-44593.7	10921.16	16.67
성별	-1186.03	1688.85	0.49	-1925.82	1746.877	1.22
학년	1618.32	725.024	4.98*	1533.837	709.8728	4.67*
상담경험	4065.51	1681.78	5.84*	2159.458	1707.003	1.60
소득	-0.0014	0.0024	0.37	-0.0008	0.0024	0.12
자기노출위험				12.9796	930.1692	0.00
전문적 도움추구				7613.266	2724.342	7.81**
심리적 어려움				1393.951	1309.569	1.13
상담준비도				7438.727	2410.932	9.52**
Scale	10321.68	536.68		9941.071	515.3111	
Log Likelihood		-794.12			-772.57	
지불의사액		15,954원			15,785원	

주. \*  $p<.05$ , \*\*  $p<.01$

집단상담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약 6회에서 8회 정도의 참석을 요하는 집단상담 1회(약 2시간 소요)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개인상담에 대한 지불의사 모형처럼 모델 1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만을 투입한 분석결과이며, 모델 2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자기노출위험, 전문적도움추구, 심리적 어려움, 상담준비도)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델 1로 추정된 집단상담 1회 참여 비용은 12,028원이었으며, 모델 2로 추정된 집단상담 1회 참여 비용은 11,811원으로 분석되었다. 1

회 참여 비용을 약 12,000원으로 추정했을 때, 8회의 집단 상담에 참석 할 경우 총 96,000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모델 1에서는 대학생의 집단상담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2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문적도움추구(Coefficient=10163.11,  $p<.001$ ), 상담준비도(Coefficient=5910.26,  $p<.05$ )만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도움추구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담에 대한 준비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4. 집단상담에 대한 지불의사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Coefficient	SE	t	Coefficient	SE	t
Intercept	9147.02	4096.59	4.99	-46596.2	11559.99	16.25
성별	-2122.30	1874.13	1.28	-3060.79	1925.94	2.53
학년	1291.73	797.10	2.63	1205.58	783.31	2.37
상담경험	2632.70	1852.18	2.02	-24.27	1894.47	0.00
소득	-0.0011	0.0027	0.15	-0.0009	0.0027	0.11
자기노출위험				-472.33	894.10	0.28
전문적도움추구				10163.11	3034.44	11.22***
심리적 어려움				2104.92	1430.63	2.16
상담준비도				5910.26	2615.54	5.11*
Scale	11175.05	640.73		10759.98	613.52	
Log Likelihood		-750.37			-728.85	
지불의사액		12,028원			11,811원	

주. \*\*  $p<.01$ , \*\*\*  $p<.001$

심리검사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심리검사 1회(약 1시간 소요) 실시 및 해석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델 1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만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이며, 모델 2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자기노출위험, 전문적도움추구, 심리적 어려움, 상담준비도)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1로 추정된 심리검사 1회에 대한 지불의사는 19,949원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2로 추정된 비용은 19,908원으로 두 모델 간 추정된 지불의사액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모델 1에서는 학년(Coefficient=2707.64,  $p<.01$ )과 상담경험 여부(Coefficient=

4389.39,  $p<.05$ )가 대학생의 심리검사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증가하고 상담경험이 있을수록 심리검사에 지불하려는 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델 2의 분석 결과에서는 학년(Coefficient=2645.44,  $p<.01$ )과 전문적도움추구(Coefficient=15171.28,  $p<.01$ )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전문적도움추구 점수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서비스에 대학생들이 어느

표 5. 심리검사에 대한 지불의사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Coefficient	SE	t	Coefficient	SE	t
Intercept	6565.56	4467.18	2.16	-60178.7	13064.52	21.22
성별	-152.33	2018.63	0.01	-1690.31	2067.73	0.67
학년	2707.64	857.74	9.96**	2645.44	838.08	9.96**
상담경험	4389.39	1992.22	4.85*	1165.26	2017.20	0.33
소득	0.0017	0.0030	0.32	0.0027	0.0030	0.82
자기노출위험				514.097	1166.37	0.19
전문적도움추구				15171.28	3323.72	20.84***
심리적 어려움				2048.20	1545.47	1.76
상담준비도				3888.59	2805.18	1.92
Scale	12005.92	616.23		11518.84	589.90	
Log Likelihood		-765.06			-742.18	
지불의사액		19,949원			19,908원	

주. \* $p<.05$ , \*\* $p<.01$ , \*\*\* $p<.001$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지불의사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전국 59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불의사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기노출위험, 전문적도움추구, 심리적어려움, 상담준비도의 심리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불의사를 살펴본 후, 이러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약 1시간이 소요되는 1회의 개인상담을 총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회의 개인상담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만을 투입했을 때(모델 1)는 15,954원을,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을 모두 투입했을 때(모델 2)는 1회 비용으로 15,785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지불의사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Choi, 2011), 진로관련 개인상담 비용으로는 45,232원~46,256원을 대인관계 문제 관련 개인상담 비용으로는 53,458원~54,781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성인 수입(평균 약 300만원)과 대학생 수입(평균 약 50만원)을 고려했을 때 대학생들이 개인상담 서비스에 지불할 상담료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동기 및 참여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5천원 미만의 상담료를 받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비교했

을 때도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학생들의 상담 지불 액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약 6회에서 8회 정도의 참석을 해야 하는 집단상담의 1회(약 2시간 소요) 참석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만을 투입했을 때는 12,028원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는 11,811원으로 분석되었다. 집단상담 1회 참여 비용을 약 12,000원으로 추정했을 때, 8회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 할 경우 약 96,000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히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참여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한 국내 선행연구는 부재하나,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비용을 고려한다면, 집단상담에 대한 지불의사 또한 개인상담에 대한 지불의사처럼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에 대한 지불의사를 분석한 결과, 모델 1(인구통계학적 변인만 투입)에서는 19,949원을, 모델 2(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 모두 투입)에서는 19,908원으로 조사되어 두 모델 간 추정된 지불의사액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검사의 종류와 소요 시간에 따라 심리검사 비용은 상이하겠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심리검사 1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불의사액은 약 20,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불의사액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지불의사액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상담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

상담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각 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개인상담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델 1(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 투입)에서는 학년과 상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선행연구(Lertmaharit, Kamol-Ratanakul, & Saul, 2000; Tang, Liu, Chang & Chang, 2007)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지불의사액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적 변인이 투입된 모델 2(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 자기노출위험, 전문적도움추구, 심리적어려움, 상담준비도 투입)에서는 학년과 전문적도움추구, 상담준비도가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적도움추구 및 상담준비도는 상담서비스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기에(김혜경, 2012; 손연아, 2011; 이민지, 2007) 두 변인이 지불의사를 높이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에 상담 이용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예견되었던 자기노출위험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상담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만을 투입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및 상담경험이 영향을

미쳤던 개인상담과는 달리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성별, 학년, 상담경험, 소득 모두 집단상담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심리적 변인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전문적도움추구와 상담준비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적도움추구 및 상담준비도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개인상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상담에 비해 심리적 변인에 더 민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모델 1에서는 학년과 상담경험이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액에 증가하며 상담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불의사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상담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심리적 변인이 투입된 모델 2에서는 학년과 전문적도움추구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적도움추구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그리고 심리검사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담준비도도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즉 상담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심리검사 서비스가 아닌 상담 관련 서비스의 경우 지불의사를 높이는데 있어서 상담준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문적도움추구 행동에 상담준비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손연아, 2011; 이우람, 2017)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모두 고려한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개인 및 집단상담 서비스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학년과 전문적도움추구, 상담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전문적도움추구, 상담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상담의 경우에는 집단상담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학년이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유발된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개인상담을 받는 것이 집단상담을 받는 것보다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담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음으로써 이러한 부담감이 해소되어 개인상담 서비스에 대한 가치 및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전문적도움추구 정도와 상담준비도가 높다면 큰 부담 없이 집단상담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만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변인이 변화되어 지불의사액이 증가되는지 밝힐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연구하거나 제안할 때, 자기보고식 평가를 통한 상담의 효과성이나 상담 이용률 등과 같은 방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경제적인 단위로 상담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환산했던 연구는 미비하였다. 상담의 가치와 필요성을 구체적인 지불의사액으로 환산하여 추정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담센터 및 상담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의 예로는 상담실 이용현황에 상담지불의사액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을 통한 예산 확보액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적용은 다른 성인 대상의 상담센터에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회기 이상의 상담에 대해서 추가 상담비용 적용함으로써 상담센터의 예산 충원의 여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담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상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역에 따라 다른 개입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일반 상담센터에서 특화된 개인 혹은 집단 프로그램 등 특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공통적 요인은 전문적도움추구와 상담준비도 변인이었으며, 이중 전문적도움추구 변인은 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의외의 결과는 상담의 접근성을 저해시킨다고 여겨졌던 자기노출위험은(Bayer & Peay, 1997; Omarzu, 2000) 지불의사액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서도 지불의사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변인보다는 상담준비도 및 전문적도움추구 등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변인들이 지불의사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준비도의 경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상담관련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상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상담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태도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대학상담센터의 예산 책정에 객관적 근거 자료 및 대학상담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서비스 영역(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별로 구분하여 지불의사를 측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상담의 내용적 측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제 영역이나 증상의 심각성 등에 따라 지불의사액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Choi, 2011)를 참고하여 호소영역에 따라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소득이나 상담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심리적 변인들이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나 자기노출위험 등과

같은 변인이 다른 매개나 조절 변인의 영향을 받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향후에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불의사액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예: 인적자본 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을 통한 상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좀 더 타당성이 확보된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상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방식이나 접근을 통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희용 (2003). CVM에 의한 항만공사 편익산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가통계포털 (2016). 2016 사회조사보고서. <http://www.kosis.kr>에서 검색
- 권용석, 이진각, 손영태 (2006).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편익 산출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6(6), 945-950.
- 김계현 (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광웅, 조병주 (2001). 학생생활연구소의 기구, 조직, 인력, 재정, 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협의회 발표 논문. 한국 대학 상담학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수현 (2002). 한국 대학에서의 상담. 학생생활상담, 20, 5-28.
- 김인규 (2002). 상담전 교육영상자료 개발 및 효

- 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미 (2002).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 지지망,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2). 대학생의 상담전문가에 대한 도움요청 연구: 도움요청태도가 도움요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93-111.
- 박성익 (1997).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 (1). 서울: 교육과학사.
- 서명석 (2002). 학생생활연구소의 발전방안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52-72.
- 서영석 (2006). 대학상담센터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제언.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통칭)협의회. 2006년도 하계연차대회 자료집.
- 손연아 (2011).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준비도와 상담서비스요구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은령, 고흥월, 이순희 (2013). 한,미 대학상담 기관 운영 실태 비교. 교육연구논총 3(1), 291-309.
- 신연희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도에서 접근 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현정 (200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및 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성경 (1998). 우울의 표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간의 비교. 청소년상담 연구, 6(1), 93-114.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영란 (2005).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유진채, 정대현 (2003).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의한 백두대간의 비시장적 가치 평가. 농어촌관광연구 10(1), 101-118.
-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10(2), 1-25.
- 이명균, 임동순 (2006).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마을숲’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시도. 한국학논집, 33, 153-194.
- 이민지 (2007).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학교), 2(1), 99-112.
- 이상민, 남숙경, 이미경 (2009).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대학상담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63-384.

- 이선훈 (2002).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 행태.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13(6), 36-58.
- 이승길 (2005). 마리아 보팅 잠재수요의 결정요인 및 시장세분화.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범, 고태호, 홍근석, 지현정 (2008).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3), 171-193.
- 이우람 (2017).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용도, 심리적 불편감 및 상담준비도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연구논문: 세대간 가족관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407-429.
- 이지현 (2010). 고대신문 1651호.
- 이혜순 (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기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6(4), 297-303.
- 임정현, 고태호, 황경수, 양영철 (2007). CVM을 이용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경제적 가치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1), 177-195.
- 장미화, 임현술, 최원상 (2005). 일개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상담 내용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 *동국의학*, 12(1), 19-27.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및 사회적지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 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2):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41-157.
- 정은영 (2012). 학생상담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영, 이지희, 김원영, 이상민 (2010). 경제적 가치 추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성과분석. *교육방법연구*, 22(1), 243-263.
- 최윤미 (2012). 한국과 미국 대학상담센터의 현황.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33(2), 21-36.
- 통계청 (2016a). *취학률 및 진학률*.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6b). *OECD 주요국의 자살률*.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6c). 「사망원인통계」 성 및 연령집단별 자살률. 서울: 통계청.
- 표순희, 정동열 (2008). 공공도서관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209-234.
- Barton, P. T., Ursano, R. J., Wright, K. M., & Ingraham, L. H. (1989).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6), 317-328.
- Bayer, J. K., & Peay, M. Y. (1997). Predicting intention to seek help from professional mental health service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4), 504-513.
- Bockstael, N. E., Freeman, A. M., Kopp, R. J., Portney, P. R., & Smith, V. K. (2000). On measuring economic values for nature.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4(8), 1384-1389.
- Carson, R. T. (1985). Three essays on contingent valuation, *Ph.D Thesis*.

- Cash, T. F., Kehr, J., & Salzbach, R. F. (1978). Help-seek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4), 264-269.
- Chiu, L., Tang, K., Liu, Y., Shyu, W., & Chang, T. (1998). Willingness of families caring for victims of dementia to pay for nursing home care: 94 results of a pilot study in Taiwan. *Journal of Management in Medicine, 12*(6), 349-360.
- Choi, B. Y. (2011). *An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Pay for Counseling Serv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 Deane F. P., & Chamberlain, K. (1994). Treatment fearfulness and distress as predictor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seek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22*(2), 207-217.
- Deane. F. P., & Todd. D. M. (1996). Attitudes and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for personal problems or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0*(4), 45-59.
- Derogatis, L. R., & Cleary, P. A. (1977).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for the primary symptom dimensions of the SCL 90.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6*(4), 347-356.
- Drummond, M. F., Sculpher, M. J., Torrance, G. W., O'Brien, B. J., & Stoddart, G. L. (2005). *Method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programmes (3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Goodman, S. H., Sewell, D. R., & Jampol, R. C. (1984). On going to the counselor: Contributions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s to the decision to seek psychologic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3), 306-313.
- Greenley, J. R., & Mechanic, D. (1976). Social selection in seeking help for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7*(3), 249-262.
- Hanemann, W. M. (1984). Valuing the environ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8*(4), 19-43.
- Jakobsson, K. M., & Dragun, A. K. (1996). *Contingent valuation and endangered species: methodological issues and application*. In: Wallace, E. Oates (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heltenham, UK, Broodfield US, Britain.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40-46.
- Kushner, M. G., & Sher, K. J. (1989). Fear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service avoid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 Practice, 20*(4), 251-257.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 22(3), 196-20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282-325.
- Lertmaharit, S., Kamol-Ratanakul, P., & Saul, A. J. (2000). Ex post and ex ante willingness to pay (WTP) for the ICT Malaria Pf/Pv test kit in Myanmar. *The Southeast Asi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31(1), 104-111.
- Minge, M. R. (1965). *Counseling read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Mitchell, R. C., & Carson, R. T. (1989). *Using surveys for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 Omarzu, J. (2000). A disclosure decision model: Determining how and individuals will self-disclo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74-185.
- Portney, P. R. (1994). The contingent valuation debate: why economists should c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3-17.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 Medicine* (1985), 39(4), 563-572.
- Tang, C., Liu, J., Chang, C., & Chang, W. (2007). Willingness to pay for drug abuse treatment: Results from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in Taiwan. *Health Policy*, 82(2), 251-262.
- Vogel, D.,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 Vogel, D. L., Wester, S. R., & Larson, L. M. (2007). Avoidance of counseling: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hibit seeking hel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4), 410-422.
- Vogel, D. L., Wester, S. R., Wei, M., & Boysen, G. A. (2005). The role of outcom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n decis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59-470.
- Wampold B. (2000) Outcomes in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oundational question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711-739.
- Zarkin, G. A., Cates, S. C., Bala, M. V. (2000). Estimat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drug abuse treatment: a pilot stud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8(2), 149-159.

원 고 접 수 일 : 2018. 0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10

게재결정일 : 2018. 08. 05



## **Economic Value and Influencing Factors of Utilizing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s for Preventative Well-being**

**Jong Hak Kim**

**Bo Young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iscal impact and variables associated with utilizing college counseling services preventatively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well-being. Survey results from 597 college students revealed they were willing to pay between 15,785-15,954 won for personal counseling, 11,811-12,028 won for group counseling and 19,908-19,949 won for psychological testing. Model 1 revealed that grade level and counseling experience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aying for personal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esting; no significant variables were associated with group counseling. In Model 2, seeking professional help, counseling readiness, and grade level were significant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counseling while seeking professional help and counseling readin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group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testing, both grade level, and seeking professional help, were significant variables. Discussion is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ollege counseling services, Economic value, Influence factor